

産業革命과 企業家活動(其一)

金 宗 炫

<目 次>	
I. 序 言	V. 産業革命期の 企業家活動
II. 産業革命과 企業家活動-研究史的 背景	1. 資本調達
III. 産業革命期の 企業家類型	2. 勞務管理
IV. 産業革命期の 企業家活動의 環境 (以下 次號掲載)	3. 需要의 創造
	VI. 結 語

I. 序 言

애슈톤(T.S. Ashton)은 그의名著『産業革命』의 終章에서 産業革命이 結果한 「災害」를 強調하는 悲觀論을 批判하면서 「이 時代의 中心問題는 以前의 어느 時代보다도 훨씬 많아진 몇 世代의 後孫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就業시키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일랜드도 같은 問題에 直面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이 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失敗함으로써 1840年代에 移民이라든가 饑餓 및 疾病에 의해서 國民의 5分の 1을 喪失했다」고 指摘하고 뒤이어서 이러한 問題를 解決한 英國의 産業革命에서 한 企業家の 役割을 다음과 같이 評價하고 있다. 「萬若 英國이 耕作農民과 手工業者의 나라에 머물고 있었다면 英國도 同一한 運命을 免치 못했을 것이며 기껏해서 增加하는 人口의 重量은 英國의 活力素를 壓倒 했음이 分明하다. 英國이 救濟된 것은 그의 支配者에 의해서가 아니라 疑問할 바 없이 그들自身의 限定된 目的을 追求하면서 새로운 生産用具와 새로운 工業管理方法을 考案하는 機智와 機略을 가진 사람들(企業家—引用者)에 의해서였다」.⁽¹⁾ 勿論 애슈톤은 産業革命이 企業家活動(entrepreneurship)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 오히려 그는 産業革命이 先行하는 時期에서의 一定한 經濟的 發展을 前提로 하고 技術, 資本, 勞動 그리고 其他 여러가지 社會經濟的 條件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客觀的으로 存在하는 社會經濟的 諸條件에 主體的으로

(1) T.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London, rev. ed., 1962, p.161.

對應해 나가는 企業家活動의 重要性을 明確히 認識하고 있으며 그것이 産業革命에서 한 役割을 積極的으로 評價하고 있는 것이다.

企業家活動이 經濟發展에서 重要的 役割을 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는 것이지만⁽²⁾ 특히 그것은 前近代의 社會經濟體制가 近代의 變革을 遂行하는 歷史過程에서 重要的 役割을 한다고 생각된다. 그 경우 經濟主體로서의 企業家活動은 거셴크론(A. Gerschenkron)이 指摘하는 바와 같이⁽³⁾ 具體的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時代와 國家의 條件에 따라서 政府라든가 銀行 등에 의해서 主導될 수도 있고 또한 純粹한 民間人에 의해서 遂行될 수도 있다. 歷史的으로 볼 때 英國의 産業革命을 歷史的 前提로해서 그 뒤를 따라간 19世紀의 後進國에서는 企業家活動이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政府라든가 銀行 또는 그들의 뒷받침을 받은 民間企業家의 意識的인 努力으로써 이루어진데 對해서 産業革命期의 英國의 企業家活動은 純粹한 民間企業家에 의해서 經驗的으로 遂行되었다. 英國의 企業家活動의 經驗的 性格은 바로 英國의 産業革命이 歷史上 最初로 또한 自生的인 過程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性格에 對應한 것이다. 産業革命期 특히 그의 初期에는 英國의 企業家活動은 그것이 어떠한 先行하는 歷史的 經驗이나 科學的 知識 없이 그리고 政府의 뒷받침도 없이 近代의 變革過程에서 나타난 새로운 諸問題를 스스로의 才能과 努力에 의해서 解決해 나갔다는 意味에서 보다 積極的으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事實 産業革命期의 英國에는 「生産要素의 새로운 結合을 考案하고 새로운 市場의 發見을 熱望하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리는 데에 敏感한」⁽⁴⁾ 企業家가 無數히 나타났으며 그들의 主體的이고 또한 創造的인 活動이 産業革命의 展開에서 重要的 役割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는 産業革命期 英國의 企業家活動에 관한 一般的 考察을 試圖한 것이다. 企業家活動이 産業革命에서 한 役割이 큰 것인만큼 그에 관한 研究는 産業革命研究에서 하나의 重要的 側面이 되는 것이며 또한 企業家活動이 時代와 國家에 따라서 相當한 程度까지 性格的 差異를 나타내는 것인만큼 그에 관한 研究는 産業革命의 比較史的 研究에서도 하나의 重要的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企業家活動이 經濟發展 그리고 특히 後進國의 經濟開發에서 하는 役割에 관한 理論的인 考察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姜命圭教授의 先驅的인 業績이 있다. 「企業家活動과 經濟發展—Entrepreneurship 研究의 視角에서—」, 『經商論集』, 第1卷, 第1號, 1962年, 參照.

(3)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Cambridge, Massachusetts, 1962; do., "The Modernization of Entrepreneurship," (이 論文은 元來 Myron Weiner(ed.), *Modernization*, New York, 1966에 發表된 것이나 後에 거셴크론 自身の 論文集 *Continuity in History and Other Essays*, Cambridge, Massachusetts, 1968, pp. 128-139에 收錄되었다.

(4) Ashton, *op. cit.*, p. 11.

II. 産業革命과 企業家活動—研究史的 背景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가 産業革命研究 더 나아가서 經濟史研究의 重要한 課題로서 認識되게 된 것은 一般的으로 말해서 第2次大戰 以後의 일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産業革命研究를 包含한 經濟史研究 一般은 主로 經濟의 構造論의 및 法則論의인 方向에서 이루어지고 歷史過程에 主體的으로 對應해 나가는 企業家は 勞動者에 對한 資本家一般으로서 階級關係에 還元되어서 抽象的으로 認識되어 왔다. 이러한 研究傾向은 그것을 産業革命研究에 限定시켜서 볼 때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從來의 産業革命研究에서는 生産力一般의 急増大와 社會經濟의 構造의 變革을 重視하는 社會經濟史的 方法에서든 또는 經濟發展을 連續的 過程으로 보고 그의 量的擴大와 그에 作用한 經濟的 諸要因의 相互作用關係를 重要視하는 數量的 方法에서든 一般的으로 客觀的 法則 또는 因果關係의 究明이 中心이 되어 왔으며 그 속에서 主觀的·個別的으로 나타난 企業家活動은 別로 注目되지 않았다. 그 경우에 供給面에서는 技術革新, 資本供給, 勞動供給, 工場制度 그리고 需要面에서는 市場의 擴大 등이 中心의 問題가 되고 그 속에서 主體的·個別的으로 行動하는 人間도 發明家, 資本家 또는 工業家와 勞動者라고 하는 諸概念으로 一般化·客觀化되게 되었다. 經濟史研究에 있어서 이러한 方法이 重要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經濟發展의 過程은 그것이 客觀的인 傾向 또는 法則性을 갖는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것은 미리 決定된 普遍妥當의인 것이 아니라 他面에서 一定한 社會的 및 歷史的인 條件 밑에서 主體的·個別的으로 對應해 나가는 人間(=企業家)活動에 의해서 커다란 影響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産業革命과 같은 大變革期에 있어서는 企業家의 主體的 活動은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第2次大戰 以前에 産業革命期의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토우(P. Mantoux)는 1906년에 이미 그의 古典的 業績에서⁽⁵⁾ 工業企業家에 관한 生々한 記錄을 남기고 있으며 特殊研究로서도 언윈(G. Unwin), 헐름(A. Hulme) 및 테일러(G. Taylor)의 共同研究⁽⁶⁾, 애슈톤(T.S. Ashton)의 研究⁽⁷⁾ 그리고 롤(E. Roll)의

(5) P. Mantoux,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rev. ed., translated by M. Vernon, London, 1928. 그의 佛蘭西語 原本은 1906년에 出版되었다.

(6) G. Unwin, A. Hulme, and G. Taylor, *Samuel Oldknow and the Arkwrights, The Industrial Revolution at Stockport and Marple*, Manchester, 1924.

(7) T.S. Ashton, *An Eighteenth-Century Industrialist: Peter Stubs of Warrington, 1756—1806*, Manchester, 1939.

研究⁽⁸⁾에 代表되는 先驅의인 業績들이 多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諸研究에서는 때로는 비록 産業革命期에 重要的 役割을 한 個個의 또는 全體로서의 企業家가 다루어지고 있다 해도 그들은 어느 쪽이나 하던 發明家 또는 工業資本家로서 認識되고 있으며 産業革命에 主體的·個別的으로 對應해 나간 經濟主體로서의 企業家 또는 그의 企業家活動이 強調되어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産業革命에서 重要的 役割을 한 發明家로서의 다아비(Abraham Darby), 아아크라이트(Richard Arkwright), 윌트(James Watt) 그리고 웨지우드(Josiah Wedgwood) 등의 이름은 教科書에서도 너무나 有名하나 企業家로서의 그들의 活動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發明家가 아닌 그러나 윌트의 蒸氣機關의 特許에 財政的인 支援을 하고 活潑한 企業家活動을 통해서 産業革命에 重要的 役割을 한 볼울톤(Mathew Boulton) 같은 企業家是 더욱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叙上한 바와 같이 經濟의 構造論的 또는 物質的 諸要因의 因果論的인 産業革命研究가 重要하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經濟發展은 經濟主體의 意思와는 別途로 客觀的·法則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主體的 意識과 行動에 크게 影響을 받게 된다. 勿論 後者は 前者에 의해서 相當한 程度까지 規制되고 그러한 意味에서 後者도 一定한 限界를 가지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지는 積極的 側面을 無視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傳統的 社會經濟의 諸關係가 무너지고 새로운 諸關係가 形成되는 時期로서의 産業革命期에는 經濟主體의 意識과 行動은 重要的 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는 産業革命研究의 重要的 課題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認識에서 企業活動에 관한 研究는 經濟史學의 重要的 課題의 하나로서 第2次大戰後에 活潑하게 展開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듯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가 經濟研究의 重要的 課題로 認識이 되고 그것이 積極的으로 推進된 데에는 基本的으로는 經濟理論에서의 企業活動에 관한 認識의 變化가 크게 作用하고 있다. 즉 客觀的 諸條件에 主體的으로 對應해 나가고 또한 有利한 諸條件을 創造해 나가는 企業家活動이 經濟發展에서 中心的인 役割을 하는 것으로 認識되고 그것이 理論體系에 導入됨으로써 企業家活動에 관한 歷史的 研究는 刺戟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企業家活動을 核心으로해서 經濟發展의 理論을 展開한 學者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슈페터(J. Schumpeter)이다.

슈페터 以前에 經濟發展에서 企業家の 役割을 重要視한 學者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8) E. Roll, *An Early Experiment in Industrial Organization, being a History of the Firm of Boulton & Watt, 1775-1805*, London, 1930.

1815년에 이미 古典學派에 屬하는 세이(J.B. Say)는 企業家를 勞動, 資本 및 土地 등 모든 生産手段을 結合하는 經濟行爲者라고 規定하고 그들의 正確한 判斷과 監督 및 管理能力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으며⁽⁹⁾ 新古典學派의 巨匠 마샬(A. Marshall)도 生産의 危險을 負擔하고 資本과 勞動을 結合하고 企劃과 管理를 하는 企業家活動이 經濟的 進歩에 重要한 役割을 했다고 指摘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그들의 主張은 當時의 經濟思想 一般으로 볼 때에는 例外的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自體가 一定한 限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生産活動 또는 經濟進歩에서 企業家活動의 役割이 重要하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음에 不過하고 그러한 認識이 그들의 理論構成에서 中心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自然法思想에 基礎를 두고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經濟가 調和的으로 發展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古典學派의 經濟學에 있어서의 各自의 利己心을 위하여 가장 合理的으로 行動하는 「經濟人」(homo oeconomicus)이 假定되고 있으며 經濟過程에 主體的·創造的으로 對應해 나가는 個別的·具體的인 企業家活動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經濟의 漸進的, 持續的 그리고 調和的 發展을 믿고 그러한 樂觀的 觀點에서 經濟의 靜態論的 또는 短期均衡論的 分析에 重點을 두는 新古典學派 經濟學에 있어서도 그러한 企業家 活動이 重要視될 수는 없었다. 「經濟學은 一定한 基本的인 人的 要因을 無視하고 있는 것이다」.⁽¹¹⁾

슈페터는 經濟發展을 漸進的, 持續的 그리고 調和的 過程이라고 보는 新古典學派의 經濟學의 靜態的 分析에 反對해서 그것은 오히려 銀行의 信用創造에 의해서 可能해지는 企業家의 革新的 活動을 통해서 斷續的, 非調和的 그리고 創造的 破壞의 過程이라고 보고 經濟의 動態的 分析을 展開한다. 그는 國民生産의 顯著한 前進은 全的으로 새로운 投資水準이 開發됨에 따라서 非調和的인 飛躍과 爆發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主張하고 그 例로 19世紀의 鐵道建設運動과 20世紀의 電氣 및 自動車工業의 大擴張을 들고 있다. 이러한 大擴張은 非連續的으로 發生함으로써 거기에 經濟變動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의 過程을 밝히는 것이 動態理論이다. 이러한 經濟發展에 관한 슈페터의 分析에서 中心의 概念으로서 導入되는 것이 「企業家의 新結合(new combination)」이다. 經濟發展을 動的이고 非連續的인 過程으로 보는 學者로서는 이미 맑스(K. Marx)가 있으며 그의 見解가 슈페터에 影響을 미

(9) Jean-Baptiste Say, *Catechism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16, pp.28-9; do.,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Vol. 1, London, 1821, p.104, cited in Arthur H. Cole,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I. Supplement, 1946 (reprinted in F.C. Lane and J.C. Riemersma(ed.), *Enterprise and Secular Change, Readings in Economic History*, London, 1953, p.183. 本稿에서는 이 리프린트版을 利用했다.)

(10) A. Marshall, *Industry and Trade*, London, 1919, pp.47-9 參照.

(11) W.W. Rostow,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2nd ed., New York, 1962, p.35.

쳤다고 하는 것은 잘指摘되고 있다. 그러나 맑스는 經濟發展의 基本的 契機를 物質의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에서 찾고 主體的, 具體的으로 나타나는 企業家活動을 包含한 人間的 要素를 社會構造論的으로, 階級的으로 認識함으로써 이데오로기의 基礎에서는 슈페터와는 전혀 다른 立場에 있다. 마이어(G.M. Meier) 및 볼딘(R.E. Baldwin)은 「그것(슈페터의 理論體系—引用者)은 하나의 適切한 結合 즉 新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의 優雅한 一般均衡 理論構造와 맑스가 強調하는 資本主義의 本質的으로 動態的인 비존의 結合이었다.」⁽¹²⁾고 말하고 있다. 슈페터에 있어서는 經濟發展은 生産諸要素의 新結合에 의해서 非連續的으로 이루어지는 過程이며 그러한 新結合을 遂行하는 것이 바로 企業家이다. 슈페터는 新結合의 形態로서 (1) 消費者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財貨 또는 새로운 品質의 財貨의 導入 (2) 새로운 生産方法의 導入 (3) 새로운 市場의 開拓 (4) 原料 또는 半製品의 새로운 供給源의 獲得 (5) 獨占의 地位의 創出 또는 獨占의 地位의 破壞와 같은 새로운 組織의 實現을 들고 있다.⁽¹³⁾ 슈페터의 理論體系에 있어서는 生産諸要素의 新結合을 遂行하는 企業家活動이 經濟發展의 起動力으로서 認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슈페터의 「新結合」 또는 革新(innovation)理論이 經濟史研究에서의 企業家 活動에 관한 研究를 刺戟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企業家 活動을 통해서 經濟發展의 過程을 歷史的으로 再解釋하려고 하는 意識的인 努力을 낳게 했다. 즉 슈페터가 그의 發展理論의 中心의 位置에 끌어올린 企業家活動을 歷史的으로 究明하는 것이야말로 經濟史學의 中心의 課題라고 하는 認識이다. 그러한 認識과 努力에서의 中心人物인 콜(Arthur H. Cole)은 1946년에 게이(E.F. Gay)의 後任으로 美國經濟史學會의 會長就任講演에서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要컨대 企業家活動은 自由로운 또는 相對的으로 自由로운 經濟에 있어서의 有力한 變化를 일으키는 힘으로 認識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企業家의 研究는 近代經濟史의 中心像을 研究하는 것이며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經濟學의 中心像을 研究하는 것이다.」⁽¹⁴⁾ 企業家活動을 中心으로 해서 近代經濟史를 再構成하려고 하는 콜의 主張에 對해서는 企業家 活動을 重要視하는 立場에서도 여러가지 批判이 提起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든 이러한 問題意識을 基礎로 해서 1948년에 하버드大學에 『企業家史研究 센터』(Research Center in Entrepreneurial History)

(12) Gerald M. Meier and Robert E. Baldwi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History, Policy*, New York, 1957, p.86.

(13) Joseph 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New York, 1934, p.66.

(14) Arthur H. Cole,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p.187.

가 設立되었다. 이 센터는 1958년에 이르기까지의 10년의 存續期間에 機關紙인 『企業家史探究』(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全 10 卷을 비롯해서 『變動과 企業家』(Change and the Entrepreneur 1949)와 『企業家史研究』(Studies in Entrepreneurial History) 全 6 卷 등 많은 業績을 남겼다. 該 研究센터가 解散된 後에도 『企業家史探究』는 세컨드 시리즈로서 1969年 여름까지 每年 3회씩 위스컨신 大學에서 全 6 卷이 刊行되었고 同年 가을의 第7卷부터는 『經濟史探究』(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로 名稱이 바뀌어 캔트 大學에서 季刊으로 繼續 刊行되고 있는 것이다.

콜은 10 年間に 걸친 企業家史研究의 諸成果 위에서 이루어진 그의 記念碑的 業績⁽¹⁵⁾의 序文에서 「事實 單약 經濟學이 進化的 特徵을 받아들인다면 經濟的 變化—成長만이 아니라 停滯와 衰退—를 모델속에 들어오는 모든 關聯諸要因과 함께 科學的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企業家史—社會的 諸制度와 文化的 諸實體의 테두리 속에서 時間과 함께 變하는 經濟 諸力을 다루는 企業經營—만큼 中心的 分野는 없는 것 같다.」고 指摘하고 企業家史가 經濟學, 經營學, 社會學 및 歷史學을 連結시키는 따라서 어느 意味에서는 經濟學을 「社會」 諸科學의 隊列에 復歸시키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架橋의 役割을 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¹⁶⁾ 이러한 企業家史研究와 그것이 經濟史學에서 차지할 수 있는 位置에 관해서는 여러가지로 論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經濟理論과 經濟史와의 關係를 密接하게 하고 또한 從來의 經濟史學에서 比較的 無視되어 왔던 人間的, 主體의 要素로서의 企業家에 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그의 位置를 正當하게 評價하는 契機를 주는 데 있어서 커다란 役割을 했다는 것은 事實이다.

한편 第2次世界大戰 以後에 展開된 經濟成長論도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를 促進시키는 作用을 했다. 즉 戰後에 經濟成長 또는 經濟發展의 問題가 經濟學의 重要的 課題로서 提起됨에 따라서 經濟學의 關心도 短期 또는 靜態論에서 長期 또는 動態論으로 移行하게 되고 그 속에서 經濟成長의 理論的 研究와 함께 그의 實證的, 歷史的 研究가 進展되게 되었다. 事實 成長理論의 展開는 經濟史學에 새로운 問題意識과 分析道具를 提供했고 또한 後者は 前者에 對해서 實證的 뒷받침을 함으로써 理論과 歷史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면서 展開되게 되었다. 로스토우(W.W. Rostow)에 의하면 이러한 理論과 歷史의 相互關係는 적어도 두 가지 背景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그 하나는 로스토우가 強調하는 經濟史學이 가져야 할 「現實的 問題意識」이 後進國의 經濟開發이라고 하는 點에서 經濟理論과 共通의 課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近代經濟學의 테두리 속에서 長期的 動態分析을 可能

(15) Arthur H.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Cambridge, Massachusetts, 1959.

(16) *Ibid.*, pp. xii—xiii.

하게 하기 위해서는 人口變化, 技術革新, 企業家活動 등의 與件의 內生化가 必要하며 여기에 經濟史學이 理論과 共通의 問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⁷⁾ 이렇듯 經濟學의 問題가 經濟史學의 問題로서 受容되는 속에서 經濟成長 또는 經濟發展의 重要한 要因으로서의 企業家活動의 理論的 認識이 經濟史學에 있어서의 그의 研究를 促進시키게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利潤極大化라고 하는 假說 위에서 企業家를 利己心을 追求해서 가장 合理的인 經濟活動을 하는 「經濟人」으로 認識하는 傳統的 經濟學에서와는 달리 經濟成長論에서의 企業家活動은 主體的·選擇의인 行動이다. 「人間은 單純히 經濟的 利益만이 아니라 權力, 餘暇, 冒險, 經驗의 繼續 및 保障 등을 追求한다. 그는 그의 家族, 그의 鄉土 및 民族, 文化의 親近한 價値 그리고 地方의 遊技에 關心을 가진다.」⁽¹⁸⁾ 라고 하는 로스토우의 指摘은 人間行動 또는 企業家活動의 動機는 單純히 利潤極大化만이 아니라 「潛在的으로는 安定, 威信, 權力, 公的 奉仕 등을 追求하는 心理的 動機의 어느 것인가와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¹⁹⁾ 라고 하는 콜의 主張과 共通된다. 따라서 利潤追求 以外的 여러가지 動機를 가진 企業家活動은 「經營單位의 內部的 狀況 그 單位를 構成하고 있는 社會集團 또한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環境 즉 그 單位를 둘러싸고 있는 諸制度, 諸活動 및 諸觀念과의 關聯에서 推進」⁽²⁰⁾ 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研究는 經濟學의 理論的 모델에 限定될 것이 아니라 經營學, 社會學 및 歷史學의 側面에서 이루어질 必要가 있다. 특히 企業家活動은 各國의 文化的, 時代的 環境에 의해서 規定되는만큼 그의 歷史的 研究는 매우 重要한 것이 된다. 經濟成長論의 中心課題인 先進國經濟의 持續的 成長과 後進國의 經濟開發 또는 工業化의 問題가 經濟史學의 「現實的 問題」로서 認識되고 있는 現狀에서⁽²¹⁾ 그의 重要한 促進要因의 하나로서의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는 經濟史學의 하나의 重要한 課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企業家活動은 叙上한 바와 같이 一定한 文化的 環境에 의해서 規定되는만큼 그에 관한 研究는 比較史的 見地에서도 매우 重要한 意義가 있는 것이다.⁽²²⁾

(17) W.W. Rostow, *op. cit.*, pp.334-43; do.,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1960, p.13, 李相球, 姜命圭 共譯, 『經濟成長의 諸段階——反資本主義史觀』, pp.34-5.

(18)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p.149; 譯書 pp.244-5.

(19) A.H.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p.16.

(20) *Ibid.*, p. 8.

(21) M.M. Postan, "Economic Growth,"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I. 1, 1953; 拙稿,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에 관한 比較史的 研究」, 『經濟論集』, 第十卷 第2號, 1971年, 參照.

(22) 日本의 經營史學會에서는 第4回大會特集號로서 企業家活動의 國際比較에 관한 諸論稿를 收錄하고 있다. 經營史學會編, 『經營史學』, Vol. 4, No. 1, 1970, 參照. 이에 앞서서 社會經濟史學會에서는 1961年의 年次大會에서 이미 共通論題로서 各國의 「近代企業家の 發生」의 問題를 다룬바 있다. 社會經濟史學會編, 『近代企業家の 發生』, 1963年, 參照.

III. 産業革命期の 企業家類型

企業家活動이 歷史過程에 主體的·個別的으로 對應해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決코 偶然한 契機에 의해서 恣意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一定한 社會的 및 歷史的 條件을 前提로 하고 그것에 規定되면서 遂行되는 主體的인 人間活動이며 따라서 그것이 實際에는 個別的으로 遂行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社會的 및 歷史的 條件 밑에서는 스스로 一定한 共通된 內容과 性格을 가지게 된다. 「經濟人」이라고 하는 假說에서는 同一하게 나타날 수 있는 人間行動으로서의 企業家活動이 國家에 따라서 그리고 時代에 따라서 性格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들 社會的 및 歷史的 諸條件에 一定한 規定을 받으면서 主體的으로 遂行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客觀的 諸條件과 人間的·主體的 對應의 相關關係가 全體로서의 經濟發展에 一定한 性格을 賦與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産業革命期の 英國의 企業家活動은 同時代의 佛蘭西와 독일의 그것과 性格的인 差異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工業化過程에 있는 後進諸國의 그것과⁽²³⁾ 그리고 심지어는 19世紀의 中葉以後에 나타나는 英國自體의 그것과도 性格的인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²⁴⁾ 이러한 國家 및 時代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企業家活動의 性格上의 差異가 相當한 程度까지 各國과 各時代에 있어서의 經濟發展의 形態에 差異를 가져오는 要因이 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는 叙上한 바와 같이 工業化 또는 經濟發展의 比較史의 研究方法으로서도 有効하게 利用될 수 있는 것이다.⁽²⁵⁾

英國의 産業革命이 先行하는 時期에 있어서의 社會經濟的 諸條件의 어느 程度의 成熟을

- (23) 예를 들어 Bert F. Hoselitz, "Entrepreneurship and Capital Formation in France and Britain since 170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pecial Conference Series 6,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 reprinted in M.E. Falkus(ed.), *Readings in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A Study of Successful and Promising Beginnings, of Special Relevance for Student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및 David S. Landes, "French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 Growth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IX, 1949; do., "The Structure of Enterprise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Cases of Britain and Germany," *Extrait des Rapports du XI^e*, Congres International des Sciences Historiques, Stockholm, 1960; J.E. Sawger, "The Entrepreneur and the Social Order,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 W. Miller(ed.), *Men in Business, Essays in the History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ssachusetts, 1952, 參照.
- (24) 호스리츠의 前掲論文 및 D.H. Alcroft, "The Entrepreneur and the British Economy, 1870—1914,"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XVII, No. 1, 1964, 參照.
- (25)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1962; do., *Continuity in History and Other Essays*, pp.137—8 및 Henry Rosovsky, "The Entrepreneurial Approach to Economic History," 『經濟科學』, Vol. 6, No. 1, 1958, 參照.

前提로 하고 自生的 過程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歷史的 性格은 그 속에서 나타난 企業 活動을 그러한 諸條件이 未熟한 狀態에서 意識的으로 產業革命을 推進해 나간 佛蘭西와 獨逸 등 19世紀의 後進諸國에서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產業革命을 推進시킨 經濟主體가 英國에서는 國家라든가 銀行이 아니라 個別的인 民間企業家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企業家活動은 一般的으로 19世紀에 工業化를 遂行하는 諸國에서와는 달리 經濟主體로서의 國家로부터의 制約과 銀行이 支配하거나 또는 其他의 他人資本에 依存하는 大株式會社의 影響을 받지 않은 相當한 程度까지 自由로운 競爭的 條件에서 스스로의 個人企業 또는 共同企業을 통해서 遂行되었으며 그 경우에 있어서 企業家個人的 資質이 보다 重要한 役割을 했다. 이러한 意味에서 產業革命期의 企業家活動은 產業革命이 完遂되어 一般的으로 企業이 株式會社組織으로 轉換되고 또한 大規模化되어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는 19世紀의 中葉 以後⁽²⁶⁾의 英國에서 나타나는 企業家活動과도 다른 歷史的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產業革命期의 英國의 企業家活動은 어떠한 類型으로 把握될 수 있을 것인가. 이 問題는 本論의 展開過程에서 究明될 性質의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企業家活動에 관한 理論的 및 歷史的인 概念을 簡單히 把握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企業家活動에 관해서는 많은 學者에 의해서 여러가지 解釋이 이루어지고 있으나⁽²⁷⁾ 本稿에서 그것은 모두 論할 必要는 없을 것이며 여기서는 本問題와 關係되는 限에 있어서 舍페터와 콜을 中心으로 理論的·一般的 考察을 하고 그것을 前提로 해서 產業革命期의 企業家活動의 性格을 보기로 한다. 企業家에 의한 生産要素의 新結合을 經濟發展의 起動力으로 보는 舍페터에게는 企業家は 이러한 新結合을 遂行하는 人間이며 그것을 遂行하는 機能이 바로 企業家活動이 된다. 따라서 그의 概念規定에 의하면 通念으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交換經濟에 있어서의 獨立的 事業家만이 아니라 한 企業의 支配人이든 또는 重役會의 構成員이든 또는 金融家

(26) 英國에서는 有限責任制가 1855年과 1856년에 大部分의 企業의 株式에 對해서 適用되고, 法人 銀行의 株式에 對해서는 1858년에 그리고 保險會社의 그것에 對해서는 1862년에 認可되었다. S.B. Clough, *European Economic History: The Economic Development of Western Civilization*, second ed., New York, 1968, p. 367.

(27) Werner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3 Bde, 1916—1927; F. Redlich, "Entrepreneurship in the Initial Stages of Industrialization," *Weltwirtschaftliche Archiv*, Bd., 75, 1955; do., "A New Concept of Entrepreneurship,"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Vol. 9, No. 2, 1957; do., *Sociological Aspects of Economic Growth*, New York and London, 1960, pp. 139—158; G.H. Evans, "A Century of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 with Emphasis upon Large Manufacturing Concerns, 1850—1957," *The Entrepreneur*, Cambridge, 1957; do., "Business Entrepreneurs, Their Major Functions and Related Tenet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IX, No. 2, 1959 등 參照.

이든 發起人이든 간에 그들이 生産要素의 新結合을 遂行하는 限에 있어서 企業家이지마는 한편 通念으로는 企業家라고 불리워지는 企業의 社長, 支配人 또는 工業家들도 設立된 企業을 이미 놓여진 軌道 위에서 運營하는 限 그들은 企業家는 아니다. 즉 「어떠한 形態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가 現實의으로 新結合을 遂行할 때만 企業家이며 그가 企業을 設立하고 그것을 慣例에 따라서 運營하게 되면 企業家라고 하는 性格을 잃는다.」⁽²⁸⁾ 그는 「單純한 管理者 (mere manager)」와 「企業家」를 明確히 區分해서 一般的으로 알려지고 있는 낡은 方法에 의해서 慣例의으로 企業을 運營해 나가는 前者에 對해서 「創意」, 「權威」 그리고 「洞察力」을 가지고 新結合을 遂行함으로써 動態的 過程을 創造해 나가는 後者야말로 經濟發展의 中心的 役割을 擔當하는 企業家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新結合은 그것이 一旦 이루어지고 나면 不遠間 陳腐해지기 마련이며 新結合을 遂行함으로써 한때 企業家活動을 遂行한 企業家라 할지라도 언제나 企業家일 수는 없고 結局 慣例化된 方法을 循環的으로 利用하게 되면 그는 이미 企業家가 아니다. 따라서 슴페터에 있어서는 企業家라고 하는 것은 職業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繼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地主資本家 또는 勞働者와 같은 意味에서의 社會階級이 되지는 못한다. 또한 企業家是 金錢의 動機만이 아니라 個人王國의 建設, 優越性的의 誇示, 그리고 創造 또는 精力과 才能의 行使에서 오는 歡喜 등 非金錢的 動機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렇듯 스페터는 企業家를 嚴格하게 抽象的으로 把握하고 있으므로 그가 말하는 企業家是 歷史的. 具體的으로 存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企業家是 그것이 古代의 支配者든, 中世의 莊園領主든, 그리고 社會主義國家의 指導者든 新結合을 遂行하는 限에 있어서 어느 時代에나 나타날 수 있는 超歷史的인 存在가 된다. 이러한 實在하기 어려운 抽象的이고 또한 超歷史的 概念은 理論的인 모델로서는 어떻든 그것이 바로 歷史的 概念으로 利用될 수는 없다. 後에 그는 企業家를 「革新」(innovation)의 機能을 遂行하는 人間이라고 規定하고 競爭的 資本主義와 巨大企業의 時代에 나타나는 그의 活動을 理論的이면서도 歷史的으로 考察하고 있다. 그러나 基本的으로 企業家活動을 「新結合」 또는 「革新」을 遂行하는 機能이라고 보고 있다는 點에서는 別로 다름이 없다. 企業家是 發明家 또는 資本家와는 다른 革新의 遂行者이며 특히 大企業組織에서는 企業家의 機能은 所有보다도 리더쉽이 重要한 것이 된다. 따라서 企業家是 資本家와 같은 危險負擔者가 아니며 또한 그가 成功

(28) Joseph 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p.78.

(29) *Ibid.*, pp.74-94.

했을 경우 또는 그의 2世들이 資本家階級을 形成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自身이 社會階級을 構成하는 것은 아니다. (30)

슘페터는 스스로가 提示한 理論的·抽象的 企業家活動을 歷史的·具體的으로 分析 提示하는 努力을 하고 있으나(31) 그러한 方向에서 決定的 役割을 한 사람은 쿨이다. 쿨에 의해서 企業家活動은 理論的임과 同時에 歷史的으로 把握되게 되었다. 쿨에 의하면 企業家活動은 「經濟財를 生産하기 위해서 하나의 生産要素가 餘他的 生産諸要素를 利用」(32)하는 것이며 또는 「經濟와 서어비스의 生産 및 分配를 위한 利潤志向의 經營體를 創設, 維持 또는 擴大시키기 위해서 取해지는 個人 또는 協同하는 個人集團의 一聯의 統合된 意思決定을 包含하는 合目的的 活動」(33)이다. 이러한 企業家活動은 具體的으로는 不確實한 世界에서 經濟的 및 社會的 條件에 影響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經營體를 運營하는 個人 또는 集團의 一聯의 統合된 行動이며 그의 動機는 企業利潤의 增大라고 하는 金錢的인 것만이 아니라 安定 威信, 權力, 能率, 企業의 殘存 및 成長, 또는 損失回避, 社會奉仕 등 企業의 餘他利得을 達成한다는 것이다. (34) 쿨은 이러한 企業家活動은 革新, 管理, 그리고 外部條件에의 調整이라고 하는 세 가지 活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이들 세 가지 活動은 ① 企業經營目的의 決定 및 그의 變更 ② 組織의 發展과 維持 ③ 適切한 財源의 確保 ④ 能率的 技術設備의 確保 ⑤ 市場開發 ⑥ 公共機關 및 社會와의 良好한 關係의 維持를 主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活動은 1人 또는 最高經營者集團의 意思決定의 結果 이루어지는 것이다. (35)

쿨이 말하는 「企業家活動」은 基本的으로는 슘페터의 그것에 管理的 側面을 追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쿨은 그러한 企業家活動을 理論的으로만이 아니라 歷史的, 實證的으로 考察하고 있다는 데에 意義가 있다. 쿨은 企業家活動이 利潤 一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部分的으로는 所興의 文化와의 直接的 關係를 통해서 그리고 部分的으로는 적어도 企業家的 役割과 承認의 特定體系와의 關係를 통해서」(36) 歷史的 性格을 갖는다고

(31) Joseph A. Schumpeter,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t Process*, Vol. I, New York and London, 1939, pp. 102-4.

(31) Joseph A. Schumpeter, "Economic Theory and Entrepreneurial History," *Change and the Entrepreneur*, 1949.

(32) Arthur H. Cole,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conomic History*, 1946, VI. Supplement, reprinted in F.C. Lane and J.C. Riemersma(ed.), *Enterprise and Secular Change, Reading in Economic History*, London, 1953, pp. 153-4.

(33) Arthur A.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Cambridge, Massachusetts, 1959, p. 7.

(34) Cole,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Ibid.*, p. 184; do.,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p. 16.

(35) Cole,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Ibid.*, pp. 184-6.

(36)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pp. 72-3.

指摘하면서 企業家活動에 관한 歷史的 分析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그는 企業家活動의 性格을 經濟史의 時代區分으로서의 「商業資本主義」, 「産業資本主義」 및 「金融資本主義」 代身에 「經驗的」(empirical or rule of thumb) 「合理的」(rational or informed) 그리고 「認識的」(cognitive or sophisticated) 諸局面에 따라서 類型的으로 考察할 것을 提議하고 있다.⁽³⁷⁾ 콜은 이러한 諸局面이 明確히 繼起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相當한 程度까지 重複되고 있다는 것을 前提하면서 그것을 英國의 企業家活動에 適用시켜서 19世紀까지를 「經驗的」 段階, 19世紀의 大部分을 「合理的」 段階 그리고 1890年頃 以後를 「認識的」 段階로 區分하고 있다.⁽³⁸⁾ 콜은 企業家活動의 性格을 ① 各時代에서의 企業家가 意思決定을 하는데에 基礎가 되는 情報의 量과 質 그리고 ② 企業家가 그와 關係를 가지면서 行動하는 各種 制度 및 人間의 組織의 複雜度를 基準으로 해서⁽³⁹⁾ 段階・類型的으로 考察하고 있는 것이다.

콜의 基準에 의하면 英國의 産業革命期는 「經驗的」임과 同時에 「合理的」 段階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經濟史의 概念으로서의 産業資本主義가 確立되는 過程으로서의 産業革命은 社會經濟的으로 一大變革期이며 그 속에서 나타난 企業家活動도 「經驗的」인 性格과 「合理的」인 性格을 同時에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만토우(P. Mantoux)는 産業革命期の 工業家의 才質을 企業의 組織과 市場開拓이라고 하는 두 가지 側面에서 論하고 있다.⁽⁴⁰⁾ 첫째로 企業의 組織者로서의 工業家は 資金을 調達하고 設備를 갖추고 企業을 設立하여 勞動者를 募集하고 그것을 指揮管理하는 참다운 意味에서의 「工業指揮官」(captain of industry)이었다. 둘째로 工業家は 製品을 販賣하기 위해서 市場을 開拓하는 商人的인 才能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工業家は 同時에 資本家이며, 工場管理者이며, 商人으로서 새로운 形態의 完全한 企業家였다.」⁽⁴¹⁾ 事實 그들은 스스로의 少額의 資本을 가지고 또는 親知의 資本과 共同으로 企業을 設立하여 費用을 節減하면서 實現한 利潤을 끊임없이 再投資함으로써 企業을 漸次로 擴大시키고 스스로가 機械를 導入하여 勞動者를 指揮監督하고 스스로의 製品을 販賣한다고 하는 諸機能을 한몸에서 遂行했다. 그들의 企業形態는

(37) Cole,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Ibid.*, p. 189.

(38) *Ibid.*, p. 191.

(39)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p. 122. 콜은 情報의 흐름 以外에도 「有効한 承認의 位置의 變化」를 하나의 基準으로 보고 있다. *Ibid.*, p. 125.

(40) P. Mantoux,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An Outline of the Beginnings of the Modern Factory System in England*, rev. ed., Preface by T.S. Ashton, New York and Evanston, 1961, pp. 374-7.

(41) *Ibid.*, p. 377.

道路, 運河, 鐵道 그리고 鑛山 등 諸部門에서는 株式會社形態의 大規模企業도 있었으나 典型的으로는 個人 또는 共同企業(partnership)이었다. 그들은 콜이 말하는 革新, 管理 그리고 外部條件에의 調整의 諸機能을 單獨으로 또는 共同企業家와 共同으로 遂行한 獨立的 企業家였다. 그 경우 그들이 한 技術革新과 管理活動은 經驗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時期의 企業家活動이 經驗的이었다는 것은 그것이 革新的이지 못했다는 것은 決코 아니다. 新發明의 採用, 工場制의 導入, 工場立地의 選擇, 分業의 強調, 資本蓄積, 勞動管理, 市場擴大 등은 客觀的 必要에 의해서 受動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時期의 企業家의 合理的 計算에 基礎를 둔 合目的 活動에 의해서 推進된 것이다.

産業革命期の 企業家活動에 관한 만트우의 綜合的인 性格規定에도 不拘하고 經濟史家들은 一般的으로 企業家活動에서의 生産的 側面을 強調해 왔다는 것은 事實이다. 「經營史學」의 創始者라고도 할 수 있는 그라스(N.S.B. Gras)는 産業資本主義를 3局面으로 區分해서 적어도 1840年頃에 이르기까지의 第1局面은 供給이 需要를 따라가지 못하는 時期이며 따라서 이 時期에서 企業家에게 問題가 되는 것은 商品의 販賣가 아니라 그의 供給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라스에게는 이 時期의 企業家活動의 中心은 技術革新, 새로운 生産組織과 그의 管理였다.⁽⁴²⁾ 그라스는 美國의 경우를 論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同時에 英國의 産業革命期에 該當하는 時期이기도 하다. 이러한 認識에서 이 時期의 企業家活動에 관해서는 一般的으로 그의 生産的 側面이 強調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傾向의 認識에 對해서 윌슨(Charles H. Wilson)은 企業家의 商人的 센스 또는 商人的 資質을 重要視해서 産業革命期の 企業家活動의 共通된 性格을 「市場機會를 開發하는 데에 必要한 能力과 結付된 市場機會의 센스」⁽⁴³⁾라는 면에서 보고 있다. 윌슨은 企業家活動에는 製造業者로서의 機能과 商人으로서의 機能이 結付되거나 또는 製造業者가 企業家일 경우에는 그는 商人的 要素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다. 예를 들어서 리이즈(Leeds)의 大毛織物工業者인 곱트(Benjamin Gott)는 무엇보다도 먼저 商人으로서 需要의 性質을 把握하는데에 最大의 注意를 했고 그러한 需要를 充足시킨다는 것은 그에게는 二次的인 關心事였다. 이러한 需要의 變化와 그에 對應해야 할 手段과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需要가 發明이라든가 企業組織에 의해서 充足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關係는 毛織物工業만이 아니라 綿織物工業에서도 볼 수 있다. 랭카셔(Lan-

(42) N.S.B. Gras, *Business and Capitalism: An Introduction to Business History*, New York, 1939, pp.189-195; 拙稿, 「經營發展의 諸段階」; 『經濟論集』, 第Ⅳ卷 第2號, 1965年, 參照.

(43) Charles Wilson, "The Entrepreneur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Britain," *History*, Vol. XLII, No. 145, 1957. p.103.

cashire) 製品의 對 유럽 輸出이 크게 增加한 背後에는 良質의 織物에 對한 需要增加라고 하는 유럽에서 나타난 市場機會를 재빨리 捕捉해서 活躍한 企業家の 뛰어난 才質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다.

「企業家の 優先的인 努力은 單純히 大量生産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現存하거나 또는 潛在하는 需要에 適切한 高級品 生産을 위한 技術革新과 組織에 集中되어야 했다.」⁽⁴⁴⁾ 윌슨은 그러한 企業家の 例로서 綿織物工業에서의 사무엘 올드노우(Samuel Oldknow), 窯業에서의 웨지우드(Josiah Wedgwood) 및 민톤(Herbert Minton), 鋼製鐵의 生産者로서 비밍컴(Birmingham)에 世界第一의 工場을 建設한 마아손(Josiah Mason), 19世紀의 80年代의 일 이기는 하지마는 비누工場에서의 레버(William Lever) 등 消費財 生産部門에서의 企業家만이 아니라, 資本財 生産部門에서는 鐵工業에서 有名한 크로우스베리(Richard Crowsbery), 베이콘(Anthony Bacon), 로벅(John Roebuck), 윌킨슨(John Wilkinson), 베세머(Henry Bessemer)와 그의 後援者인 부라운(John Brown), 「工業指揮官」으로서 有名한 보울톤(Mathew Boulton) 등을 들고 있다.⁽⁴⁵⁾ 이들은 産業革命期의 代表的인 企業家들이다. 充足되어야 할 需要는 製品一般이 아니라 그 中の 特定製品이었으며 그것을 빨리 感知해서 供給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企業家の 才能이었다. 즉 重要한 것은 商業의 眼識(commercial flair)이었으며 그러한 意味에서 商人이 工業生産者의 上位에 있었던 것이다.⁽⁴⁶⁾

윌슨이 말하는 商人的 才質이 強調된 만토우의 「새로운 形態의 完全한 企業家」의 活動에 우리는 産業革命期의 企業家活動의 類型的 性格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IV. 産業革命期의 企業家活動의 環境

企業家活動이 歷史的 過程에 創造的으로 對應해 나가는 人間의 主體的 行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에 의해서 規定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⁴⁷⁾ 叙上한 바와 같이 時代에 따라서 그리고 國家에 따라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企業家活動의 性格에 一定한 類型的인 變差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相異한 環境에 規定되면서 遂行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다이어스(Peter Mathias)는 産業革命에서 企業家活動이 한 役割을 重要視하면서도 企業家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과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企業家—引用者)은 經濟的 機會를 創出した 것과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發生했

(44) Wilson, *Ibid.*, p. 109.

(45) *Ibid.*, pp. 109-111.

(46) *Ibid.*, p. 111.

(47) Arthur H.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p. 19.

다. 그들은 어디서나 必要한 創造的 環境에 依存했다. 그들은 經濟成長에서 部分的으로는 原因으로서 그리고 部分的으로는 結果로서 다른 諸要因의 序列에 들어갔다. 즉 그들은 工業進步의 結果로서 나타난 屬性이면서 그의 創造的 部分이었던 것이다.」⁽⁴⁸⁾

事實 英國의 產業革命이 民間企業家의 活潑한 活動에 의해서 自生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近代의 企業家가 發生될 수 있었고 그들의 活潑한 企業家活動이 遂行될 수 있었던 것은 有利한 環境이 存在했기 때문이다. 產業革命期에 英國의 民間의 企業家活動을 둘러싼 環境이 有利했다는 것은 佛蘭西와 獨일을 비롯한 19世紀의 後進諸國의 工業化初期에 나타난 環境과 對比해서 볼 때 明白하며⁽⁴⁹⁾ 또한 工業化初期段階에 있는 오늘날의 後進國에 比해서도 有利했다고 생각되고 있다.⁽⁵⁰⁾ 企業家活動의 環境은 單純히 經濟的인 것만이 아니라 政治的, 社會的, 그리고 精神的인 것이 包含된 全般的인 것이다. 企業家活動은 이러한 環境을 前提로해서 展開되는 만큼 우리는 產業革命期의 企業家活動을 究明하기에 앞서서 이 時代의 企業家活動을 둘러싼 環境을 考察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企業家活動을 直接的으로 規定하는 客觀的 環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經濟的 環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앞서서 政治的 및 社會的 環境을 보자. 政治的 條件과 政府의 態度 그리고 社會的 諸條件 및 價值體系는 企業家活動에 對해서 經濟的 環境에 못지 않은 重要한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18世紀의 英國의 政治的 環境이 企業家活動에 相對的으로 有利하게 作用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政治的 安定과 특히 政府의 態度에서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大陸諸國에 比해서 英國은 18世紀를 통해서 安定된 政治過程이 繼續되었으며 또한 破壞的인 戰爭이라든가 混亂을 經驗하지 않고 安定된 社會를 基盤으로 해서 經濟的 進步의 過程을 걸어가갈 수가 있었다. 18世紀末에서 19世紀初에 걸쳐서 遂行된 英佛戰爭도 이러한 政治的 및 社會的 安定基調에 根本的인 影響을 주지는 않았다. 政治가 安定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政治體制도 近代의 企業家의 發生과 그의 活動에 有利한 方向으로 轉換되고 있었다. 즉 1640年代의 市民革命에 의해서 絶對王制를 打倒하고 1688—9年の 名譽革命을 거친 英國에서는 王權은 制限되어 中產階級의 政治力이 크게 伸長되고 있었다. 勿論 英國에서 選舉法改正이 이루어지는 것은 1832년에 이르러서이며 政治權力도 實際에는 地主=貴族階級에 의해서 擔當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이미 閉鎖

(48) Peter Mathias, *The First Industrial Nation,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700—1914*, London, 1969, p.151.

(49) 拙稿,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에 관한 比較史的研究」, 『經濟論集』, 第X卷 第2號, 1971年, 參照.

(50) United Nations, *Processes and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1955, Chapter 2, 參照.

的이고 頑固한 前近代的인 階級이 아니라 相當한 程度로 開放的이고 階級間的 移動도 可能했던 그들의 政治的 支配가 中産階級の 經濟活動을 크게 制約하지는 않았다. 事實 産業 革命期에 있어서 政府는 民間의 經濟活動에 干涉하지 않고 經濟的 自由를 保障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時期에 英國의 重商主義의 政策體系가 一掃되고 完全한 自由放任이 實現된 것은 아니다. 英國 重商主義의 支柱였던 穀物法과 航海條例가 最終的으로 撤廢된 것은 各 各 1846年과 1849年에 이르러서이며 東印度會社의 貿易獨占權도 1813年까지 繼續되었고 合本會社의 組織도 規制되고 있었다. 그러나 政府에 의한 經濟的 規制는 主로 外國貿易部門에 限定되고 있었으며 國內經濟에서는 國防上 매우 重要한 造船 및 軍需關係部門을 除外하고 (51) 政府는 民間經濟活動의 自由를 保障했다. 뿐만 아니라 政府는 비록 事實上 死文化된 것이기는 하나 國內經濟活動을 規制하던 諸法을 廢棄함으로써 經濟的 自由를 制度化하는 努力을 하고 있다. 딘(Phyllis Deane)이 指摘하는 바와 같이 産業革命期의 政府의 役割은 民間의 經濟活動을 放任했다고 하는 消極的인 面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經濟的 自由를 實現하기 위한 積極的인 試圖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52) 經濟活動의 自由가 英國의 企業家活動에 미친 有利한 影響은 大陸諸國과의 對比에서 볼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 經濟活動의 細部에 이르기까지 國家的 規制가 이루어졌던 유럽大陸의 諸國에서는 企業은 國家에 의해서 主導되거나 또는 뒷받침됨으로써 비로서 發展되었고 따라서 民間企業家は 競爭을 통한 才能의 發揮보다는 政府로부터의 特權 또는 特惠獲得에 注力하게 되어 國家依存的 性格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53) 이렇게 해서 全體로서의 18世紀의 英國의 政治的 環境은 民間企業家活動의 活潑한 展開에 有利하게 作用했던 것이다.

政治的 環境과 함께 社會的 環境도 重要하다. 政治的 安定이 이루어지고 經濟的 自由가 保障된다 하더라도 社會制度가 固定化되어 있고 貧富의 差가 甚하고 또한 傳統的 價値觀이 支配的인 社會的 環境에서 近代의 企業家活動이 展開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18世紀의 英國의 社會的 條件도 佛蘭西 등 大陸諸國에 比해서 有利한

(51) Bert F. Hoselitz, "Entrepreneurship and Capital Formation in France and Britain since 1700," in M.E. Falkus(ed.), *Readings in History of Economic Growth*, p.111; Mathias, *op. cit.*, pp.32-4, 參照.

(52)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Cambridge, 1965, p.121; 姜命圭 譯, 『英國經濟의 工業化過程』, 229-30面, 參照.

(53) H.J. Habakkuk, "The Historical Experience on the Basic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in M.E. Falkus(ed.), *Readings in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1968, pp.35-6 (하바쿠크의 이 論文은 元來에는 Leon H. Dupriez(ed.), *Economic Progress, Papers and Proceedings of a Round Table held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1955에 發表된 것이다.); Hoselitz, *op. cit.*, pp.99-105, 參照.

것이였다. 産業革命 前夜에는 이미 前近代的 社會가 그에 基礎를 두고 있던 農村構造는 相當한 程度까지 近代的 轉換을 하여 資本主義의 農業經營이 展開되고 있으며 길드제도 撤廢되어 自由로운 工業生産을 沮害하는 社會的 制約은 存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人口의 地域間 移動은 比較的 容易해지고 그것은 産業革命期의 勞動力供給에서만이 아니라 近代的 企業家의 供給에도 有利한 條件이였다.

특히 英國에서 階級間的 從的인 社會的 可動性(social mobility)이 컸다는 것은 近代的 企業家의 供給과 그의 活動에 매우 有利한 條件으로서 作用했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英國의 貴族階級은 頑固한 閉鎖的 階級이 아니라 富를 蓄積한 商工業者에게는 그의 門戶가 開放되고 있었으며 한편 貴族의 次·三男은 積極的으로 實業界에 進出했다. 애슈톤(T.S. Ashton)은 貴族과 平民間的 階級的 區分이 嚴格했던 유럽大陸諸國 특히 佛蘭西에 對比하면서 「英國에서는 貴族은 鄉紳(squires)와 合同하고 鄉紳은 自由保有農 및 農業者와 合同하고 있었다. 所得을 地代에서 얻는 階層과 商工業의 利益에서 生活하는 階級間에는 明確한 區別은 없었다.」⁽⁵⁴⁾고 말하고 있다. 크로우제(F. Crouzet)는 階級間的 從的 可動性이 컸었다는 것이 産業革命期 企業家活動의 環境으로서 가지는 意義를 過大評價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理由로서 運河建設에서의 부리지워터공(Duke of Brigdeewater)과 其他 實業界에서의 若干의 大地主를 除外하면 貴族이나 또는 젠티리(gentry)에 의한 企業家活動은 그렇게 活潑하지 않았으며 한편 佛蘭西의 貴族도 반드시 閉鎖的 階級만이 아니라 그들의 實業界에의 進出例도 있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⁵⁵⁾ 그러나 社會的 可動性의 意義를 貴族이 얼마만큼 企業家로서 活動했느냐고 하는 것만으로 評價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貴族이 政治的 權力과 社會的 威信의 象徴으로서의 社會的 承認을 받고 있는 社會에서는 社會的 可動性 다시 말하면 貴族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이 보다 重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社會에서는 비록 貧困한 下層階級の 出身者라고 할지라도 才能있는 者는 實業界에 進出해서 企業家로서 大成하면 貴族의 稱號를 받고 社會的 承認을 얻을 수가 있었다. 뿐

(54) T.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rev. ed., London, 1962, pp.20—1.

(55) F. Crouzet, "England and France in the Eighteenth Century: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Economic Growths," *Annales*, 21, 2, 1966, reprinted in R.H. Hartwell(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London, 1967, p.158. 크로우제는 從的인 可動性이라든가 價値基準보다도 企業家의 精神狀態가 重要하다고 主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英國社會에는 보다 資本家的 보다 營利的 보다 強慾의 精神이 있었다. 當時의 說明에 의하면 英國에는 利得追求에서의 苛酷性 殘忍性 集中性이 있었는데 舊制度下의 安逸한 佛蘭西에서는 그것이 없었다.」, *Ibid.*, p. 159.

만 아니라 새로운 價値觀은 企業家 自身에게 높은 社會的 評價=承認을 주었다.⁽⁵⁶⁾ 이러한 環境에서 多數의 企業家가 輩出되고 그들의 活動이 促進되었던 것이다.

事實「그들(企業家—引用者)은 모든 社會階層과 國內의 모든 地方에서 發生했다.」⁽⁵⁷⁾ 홀감의 코오크(Coke of Holkam) 즉 레스터伯(Earls of Leicester)은 農業經營에서 핏즈윌리엄伯(Earl of Fitzwilliam)과 그의 所領支配人들은 炭礦開發에서 그리고 叙上한 부리지 워터公은 無學의 부린들리(James Brindley)와 함께 運河開鑿에서 企業家의 役割을 했다. 한편 大毛織物工業者가 된 곱트(Benjamin Gott)는 리이즈(Leeds)의 商人이었으며, 財政支授을 통한 윗트와의 共同企業經營者 보울톤(Mathew Boulton)은 버밍검(Birmingham)의 金屬雜貨製造業者的 아들이고, 大紡績業者가 된 아아크라이트는 理髮師였으며, 陶器工場에서의 代表的 人物인 웨지우드는 貧困한 陶器製造業者的 아들이고 슈롭셔(Shropshire)의 製鐵業者 다아비(Abraham Darby) 1世는 半農半工의 자물쇠 鍛冶工의 아들이었다. 또한 力織機를 發明한 카아트라이트(Edmund Cartwright)는 牧師였고 大規模工業의 指揮者가 된 로벅(John Loebuck)은 醫師였고, 鑛工業에서 有名한 企業을 設立한 스티브(Peter Stubs)는 旅館主人이었으며, 北部 잉글랜드의 鐵工業에서 指導的 企業家가 된 워커(Samuel Walker)는 教師였다. 이러한 例는 이 以外에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이다.⁽⁵⁸⁾

産業革命期の 企業家가 모든 社會階層과 모든 地方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하나의 特徵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특히 非國教徒 프로테스탄트의 中産層에서 多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하나의 特徵일 것이다. 1800년에는 퀘이커教徒(Quakers)인 바아클레이(Barclay), 퍼킨즈家(Perkins), 트루먼家(Trumans), 그리고 햄버리家(Hamburys)는 穀物去來, 製粉業, 釀造業에서 로이드家(Lloyds), 다아비家(Darbys), 크로울리(Ambrose Crowley)는 鐵工業과 商業에서, 바아클레이家(Barclays), 베반家(Bevans), 로이드(Lloyds)家 그리고 거니(Gurney) 등은 銀行業에서 各各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었다. 또한 鐵工業에서의 로벅과 도우슨(Joseph Dawson)은 獨立教會派이며 맥콘넬家(M'Connells)와 그레그家(Gregs) 등 유니타리아派의 企業家는 綿紡績工業에서 重要的 役割을 했던 것이다.⁽⁵⁹⁾

叙上한 바와 같이 産業革命期の 企業家의 廣範한 輩出의 社會的 條件으로서 우리는 一般的으로 社會的 可動性的의 增大와 새로운 價値觀에 따르는 企業家에 對한 높은 社會的 評價

(56) R.H. Hartwell, "Business Management in England during the Period of Early Industrialization: Inducements and Obstacles," in R.H. Hartwell(ed.), *The Industrial Revolution*, Oxford, 1970, pp. 33-4.

(57) Mathias, *op. cit.*, p. 156.

(58)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pp. 16-7.

(59) Mathias, *op. cit.*, p. 158; Ashton, *Ibid.*, pp. 17-8.

=承認의 意義를 強調했는지라는 것에서도 非國教派프로테스탄트 속에서 多數의 有力한 企業家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說明될 수 있을 것인가. 이 問題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側面에서 論議되어 왔다. 특히 웨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트의 教義와 資本主義發達の 內面的 關聯性을 重視하여 禁欲의 프로테스탄트의 倫理가 프로테스탄트들의 世俗的 職業活動의 合理的 追求를 통해서 資本主義의 發達을 促進시켰다고 主張함으로써⁽⁶⁰⁾ 合理的 經濟活動의 擔當者로서의 近代의 企業家의 社會的 및 精神的 基盤을 그들과 그들의 教義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웨버의 主張에 對해서는 많은 學者에 의해서 論議가 거듭되어 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⁶¹⁾ 그러나 토오니(R.H. Tawney)⁽⁶²⁾와 특히 最近에는 사무엘손(K. Samuelsson)의 實證的 反論이 提起되고 있으며⁽⁶³⁾ 이 問題도 結論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다. 하아트웰이 指摘하는 바와 같이 「基本的인 디테머는 資本主義가 프로테스탄티즘이 있으나 없으나 興隆했고 또한 프로테스탄티즘이 資本主義가 있으나 없으나 興隆했다고 하는 事實에 의해서 提示된다. 外生的으로 變化된 價値가 人間을 보다 크고 効果적인 努力으로 박차질겠는지 또는 오히려 成功적인 企業이 變化에 有利한 環境과 그러한 企業에 有利한 價値의 合理化를 創出했는지는 分明하지 않다.」⁽⁶⁴⁾ 이렇듯 아직도 여러가지 問題가 있으면서도 價値觀의 새로운 轉換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 한 役割이 컸다는 것은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非國教徒 속에서 많은 企業家가 輩出될 수 있었던 社會的 背景이 있었다는 것은 事實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官職과 軍의 要職에서 排除됨으로써 그들의 能力은 商工業에서 發揮될 수 밖에 없었다. 企業經營에 危險度가 높고 또한 不確實한 要素가 많았던 當時에 있어서 信仰을 통한 그들의 家族的인 強한 紐帶는 그들 相互間의 資本調達과 企業運營을 容易하게 했다. 그들의 信仰에서는 誠實과 正直이 強調되고 奢侈와 怠慢은 惡德이었다. 企業經營이 個人的 또는 家族的 基盤에서 이루어지던 當時에 있어서 이러한 事實은 企業家活動에 有利한 條件이 되었다. 그들의 知的 背景도 重要的 것이었다. 애슈톤은 「非國

(60)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er der Geist des Kapitalismus*,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XX und XXI, 1904—5(本論文은 後에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I, Tübingen, 1920에 收錄되었다.); 權世元·姜命圭 共譯,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1958年, 參照.

(61) 웨버의 提제를 둘러싼 論爭에 관해서는 Robert W. Green(ed.),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Boston, 1959, 參照.

(62) R.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A Historical Study*, London, 1926 參照.

(63) K. Samuelsson, *Religion and Economic Action*, London, 1961年, 參照.

(64) Hartwell, "Business Management in England," p.34.

教徒가 大體的으로 中産階級中の 比較的 教育的 높은 層을 構成하고 있었다는 事實」⁽⁶⁵⁾이 야말로 그들로부터 企業家가 多數 輩出된 가장 重要한 理由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옥스포드(Oxford)와 캠부리지(Cambridge)에의 進學의 길이 막히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스코트랜드의 그라스코(Glasgow) 또는 에딘버러(Edinburgh)에 進學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한 그들 스스로가 設立한 많은 非國教徒 아카데미(Dissenting Academies)에 進學하게 되었다. 「科學의 研究와 그의 實際的 應用에의 推進力은 햇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옥스포드라든가 캠부리지로부터가 아니라 그래스코와 에딘버러로부터 나타났다.」⁽⁶⁶⁾ 産業革命期에 要請된 새로운 實踐的 學問은 잉글랜드에서가 아니라 스코트랜드의 大學에서 展開되었던 것이다. 한편 産業革命期의 잉글랜드에서 새로운 實業教育에서 重要한 役割을 한 高等教育機關은 아카데미(Academy)였다. 아카데미는 18世紀末에는 200 個校에 達했고 그의 教科內容은 18世紀가 經過되는 過程에서 漸次的으로 古典보다도 數學, 科學技術, 會計學, 航海學 등 科學 및 實科에 置重하게 되고 있으며 아카데미의 이러한 性格이 새로운 時代的 要請으로서의 産業技術教育에서 重要한 役割을 했다. 非國教徒가 設立한 아카데미는 一般의 아카데미와는 달리 大學과 同等한 水準에서 牧師, 醫師 및 法律家를 養成하기 위한 教育機關이 있었지만 産業革命期에는 一般아카데미에서와 같이 實業教育이 優勢하게 되고 있다.⁽⁶⁷⁾ 또한 富裕한 非國教徒들은 家庭教師를 통한 二世教育에도 實業教育을 施行했으며 그들의 1-2年間의 海外旅行에도 實業訓練의 一部로서 親戚 또는 同一教派人의 實業人을 同行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産業革命期의 企業家活動을 直接的으로 規定한 經濟的 環境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經濟的 環境으로서 가장 重要한 것은 市場의 規模와 性質이다. 이 時期의 技術革新이 標準的 商品의 大量生産만이 아니라 生産되는 商品의 多樣化를 結果한 만큼 그에 對應한 市場의 擴大, 需要의 多樣化 그리고 市場去來의 自由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8世紀의 英國에서 市場의 規模는 크게 擴大하고 있었다. 産業革命期의 市場擴大에서 그에 先行하는 時期의 外國市場의 擴大가 가장 重要한 役割을 했다고 하는 舊學說은 오늘날 批判되어 國內市場의 擴大가 보다 重要視되고 있지만⁽⁶⁸⁾ 그러나 그의 重要性을 否定할 수는 없다⁽⁶⁹⁾ 한편 國內市場도 크게 擴大되었다. 18世紀의 英國에서는 大陸諸國에서와는

(65)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p.19.

(66) *Ibid.*, pp.19-20.

(67) Sidney Pollard, *The Genesis of Modern Management: A Stud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reat Britain*, London, 1965, pp.114-7, 參照.

(68) Phyllis Deane, *op cit* p.49, 前揭譯書 51面.

(69) Habakkuk, "The Basic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p.35.

달리 國內關稅가 存在하지 않으므로써 全國的 市場이 形成되고 있으며 安定的이고 能率的인 貨幣金融制度는 商品去來를 促進시켰다. 18世紀 中葉以後의 有料道路라든가 運河 등 새로운 交通手段의 變革에 의해서 商品流通이 促進되기 以前에는 海路와 河川을 통해서 海港은 勿論 內陸地方까지 連結될 수 있었다고 하는 英國의 地理的 條件에 의해서 相當한 程度까지 市場의 外延的 擴大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産業革命期の 人口增加도 市場擴大의 要因으로서 作用했다. 1695年에서 1801年에 이르는 사이에 英格蘭 및 웨일즈의 人口는 約 4分の 3 增加했다.⁽⁷⁰⁾ 이러한 人口增加가 반드시 市場擴大에 連結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購買力이 增加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英國의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實質所得이 向上됨으로써 人口增加는 市場擴大의 커다란 要因이 되었다.⁽⁷¹⁾ 특히 實質所得의 上昇은 從來의 商品에 對한 需要를 擴大시킬 뿐만 아니라 新製品에 對한 需要를 喚起시킴으로써 工業生産 나아가서는 企業家活動을 刺戟했던 것이다.⁽⁷²⁾

한편 이러한 擴大된 市場의 性質은 相當한 程度까지 自由로운 것이었다. 經濟活動에 관한 政府의 干渉이 크게 後退하고 民間企業家の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制約하는 諸規制가 撤廢되었다는 것은 叙上한바이지만 그에 더해서 商法의 發達は 契約, 讓渡證書, 破産, 保險 등에 관한 法價例를 規則化하고 또한 確實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賃金과 地代, 資本의 價格과 土地의 價格, 原料 및 製品價格 등 모든 것은 慣習이라든가 市場規則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漸次로 自由로운 市場에서의 供給과 需要의 關係에 의해서 決定되게 되었다.」⁽⁷³⁾

以上에서 우리는 企業家活動의 環境으로서 産業革命期の 政治的, 社會的 그리고 經濟的 條件을 考察했다. 이들 諸條件은 一般的으로 이 時期의 企業家活動에 有利하게 作用했다고 생각된다. 勿論 有利하다는 것도 相對的인 意味에서이며 그것을 너무 過大評價해서는 안된다. 有利한 反面에는 不利한 點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産業革命이 企業家活動에 많은 機會를 賦與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것은 反面에 變革期에 隨伴되는 不確實性 따라서 危險을 增大시켰다. 예를 들어 1819年에서 1836年에 이르는 사

(70) T.S. Ashton,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18th Century*, London, 1955, p.2.

(71) 産業革命期の 勞動者の 生活水準에 관해서는 學者들 間에 오랜 論爭이 있으나 18世紀에 관한 限 그들의 生活水準이 向上되었다는 데에는 意見이 一致되고 있다. 拙稿, 「産業革命과 勞動者の 生活水準—論爭史的展望—」, 『經濟論集』, 第X卷 第1號, 1971年, 3月, 46面, 參照.

(72) 이러한 關係에 관해서는 E.W. Gilboy, "Demand as a Factor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 論文은 元來 A.H. Cole(ed.), *Facts and Factors in Economic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32에 發表된 것을 R.M. Hartwell(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London, 1967에 再收錄되었다. 本稿에서는 後者を 利用했다.) 參照.

(73) Hartwell, "Business Management in England," p.38.

이에 10개의 大工場에서 9개 工場의 所有주가 바뀌었으며 한 工場監督官이 擔當한 地區에 1836년에는 318개의 企業이 있었던 것이 1846년에는 127개 企業만이 運營되고 있었다는 事實⁽⁷⁴⁾에서 볼 수 있듯이 産業革命期の 企業은 매우 不安定한 基盤에서 運營되고 있었으며 그만큼 企業家の 危險負擔率은 높았다. 또한 英國의 産業革命이 歷史上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만큼 그 속에서 나타난 企業家活動도 여러가지 社會的 抵抗에 直面했다. 특히 勞動者를 工場에 編入시키는 데에서 나타난 困難, 그리고 機械導入에 對한 社會的 抵抗은 工場制의 導入을 遲延시켰으며 그 속에서 企業家가 負擔해야 했던 코스트는 컸다. 其他 制度的 및 技術的인 面에서의 不利한 點도 있었다.⁽⁷⁵⁾ 이러한 不利한 側面이 있었던만큼 이 時期의 企業家 個個人的 活動 餘地가 컸고 그만큼 主體的으로 對應해나간 企業家の 役割도 컸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不利한 諸條件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全體로서 産業革命期の 環境은 英國의 企業家活動에 有利하게 作用했던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副教授)

(74) *Ibid.*, p. 31, note 3.

(75) *Ibid.*, pp. 39-40 參照.